



유럽 도시의 골목길은 모세혈관처럼 곳곳에 있고 사람들의 흐름을 이끌고 있다. 역사 문화자산·공원·광장 등은 물론 점포·식당·노점상 등과 연계되면서 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되고 있다. 사진은 프랑스 리옹의 골목길.

# 세월이 멈춘 길... 걷는 곳마다 관광명소

##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 <34> 유럽편 '도시와 골목길'

도시를 촘촘히 엮어진 크고 작은 '길'의 집합소이다. 도시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도시 내외를 연결하는 도로의 수가 늘어나고, 폭도 넓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광주의 주요 도로들은 1960년대 후반부터 급남로를 시작으로 자동차 수의 급증과 함께 확장 과정의 꺾임이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 택지조성사업 등을 통해 새로운 주거지역이 생겨나면서 거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새 도로가 곳곳에 조성됐으며, 좀 더 신속하게 도시 내부를 연결하기 위한 제1순환도로에 이어 제2순환도로로 설치됐다.

문제는 이들 길이 모두 자동차 소통을 위해 조성되거나 확장했다는 점이다. 갈수록 길을 자동차가 차지하고 이러한 추세는 곧 도시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전통시장보다 대형 마트,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 거리 점포보다 대형 쇼핑몰 등이 더 선호되는 배경에는 바로 자동차가 있다.

걷기 편한 길은 사라지고 간선도로만이 아니라 시내 곳곳의 골목길마저도 자동차들이 차지하면서 도시의 주인은 어느새 도시민이 아닌 도시민이 소유한 자동차가 돼 버린 것이다. 반면 유럽의 도시에서 길은 도시의 매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다. 잘 갖춰진 노면전차,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자전거 및 보행 위주의 교통 체계는 도시의 상단, 광장, 중세 및 근대건축물 등 역사문화자산과 맞물리면서 도시 전체를 거대한 관광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자동차전용도로가 있듯 자동차가 배제되는 걷기 전용도로가 있으며, 시간제로 자동차의 진입이 규제되고 있다.

영국 에딘버러의 중심에 우뚝 서 있는 에딘버러성 인근 길에는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대인 오전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자동차의 진입을 막는 교통표지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자동차가 없는 도로에

서 사람들이 움직이고, 이들 유동인구가 점포나 식당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주변이 활기를 띠는 것이다. 글라스고의 뷰캐넌거리는 언제나 사람들로 북적이는 도시 최대의 시가지로, 차도와 보도의 폭이 똑 같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히려 보도의 폭이 더 넓은 곳도 있다. 자동차의 소통은 어렵고, 사람들의 통행은 쉽게 했다.

프랑스 리옹의 경우 상점, 음식점, 기념품가게 등이 즐비한 각 골목길마다 특색이 있다. 살 것도, 먹을 것도 많으며, 볼거리와 그에 따른 감흥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가로수 그늘 아래 노점상이나 거리카페에서 산 음식을 먹으며 사람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다. 리옹의 골목길은 주택과 주택을 앞뒤로 연결하는 미로이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레지스탕스의 거점으로 프랑스의 자존심이었다. 주민들은 레지스탕스를 숨겨주었고 나치의 손에서 리옹을 지켜내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도 1~2평만이 들어갈 수 있는 미로가 그대로 남아있어 관광명소가 되고 있다. 일부 공간에는 예술가들이 들어가 있다. 골목길 곳곳에 광장이나 분수대가 있으며, 역사박물관 등 문화공간도 풍

## 에딘버러 성 인근길 보행자 최우선 배려 '활기' 리옹, 2차대전 당시 미로길 보존...1년내내 북적 걸다 쉬다 정겨운 골목의 정취·도시 속살 체험

부했다. 상점, 음식, 역사, 문화, 자부심, 예술, 여유 등이 복합적으로 골목길을 구성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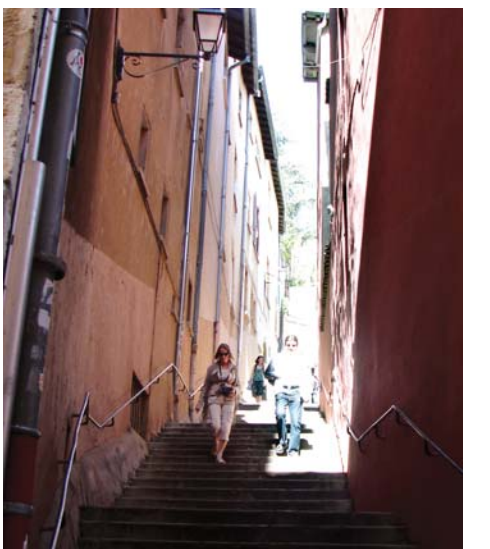
독일 역시 길의 소중함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불법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도심 곳곳에 인근 주차장 안내판을 설치, 시민이나 외국인에게 되도록 걸으면서 도시를 살펴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프라이부르크, 프랑크푸르트 등의 도시에서는 대중교통수단만이 장소와 장소를 직접 연결하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자동차 소유자는 언제나 주차한 뒤 걷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 길을 포함하는 바닥제도 다양했다. 단순히 아스팔트를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양이 다른 돌이나 화강암, 아스팔트, 시멘트 등 다양한 소재를 통해 장소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글·사진=윤현석기자 chadok@kwangju.co.kr



프랑스 파리의 넓은 보도와 좁은 차로.



영국 에딘버러성 인근 골목길.



프랑스 리옹의 골목길 계단.

**SINCE 1988**

대한민국대표방수제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칠만표 방수제

무료견적 시공상담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제품에서 공사까지 책임집니다."  
누구나 칠만하면 100% 완전방수!!  
직접 시공 가능합니다!!

의상·외벽 시공 사진

옥상, 지하실, 외벽, 주차장, 옥실 등 방수를 요하는 곳

최선을 다하며 방수전문가가 책임방수를 합니다.

폭리를 취하는 견적이나 덩땅견적은 넣지 않습니다.

광주 서구 352-7788 남구 676-7719 북구 512-7998

전남 목포 274-5987 순천 744-8605 여수 654-7755

(주)칠만공차 / 칠만표방수제  
서울본사 : 02)454-7722

www.oknwood.com

목조주택 & 아파트 리모델링 전문업체

친환경 제품

- 한국 편백, 일본 편백 · 황토보드, 게르마늄 분말(황토, 게르마늄 토탈)
- 친환경 흙음재, 친환경 단열재, 불연칼라 내장 미감재, 목도보드

각종 내장재

- 특수목, 남미산천연테크재, 독일산 아이들(오일스테인), 연동도어, 보석유리, 접합유리방음, 필름합판, 문짝, 물림

판매품목

- 장승 · 5단서랍장 · 수납공간 · 불림이장 · 족욕기 · 독서대 · 책상Set(의자 · 책꽂이)
- 침대 · 실롱 · 편백건강베개(편백씨앗 + 결명자씨앗) · 편백나무베개 · 편백거스기 수액

편백나무가구 전문업체  
광남중목재건축재상사주  
광주광역시 남구 백운동 634-26  
tel.062)652-2935 · 2223 fax.062)651-5141

편백나무 인테리어 상담 및 편백주주제작  
전국 전남북·시·군 대리점 모집 판매 및 창업문의 010-3609-4321

·협력사 | 우던페이퍼몰딩 | 태원목재 호남총판 | KCC석고보드총판 | 라파즈 석고보드 총판 | KCC강화마루 | 동화마루 대리점 | 레도피아 합성목재 호남총판